

화산흑토와 과학기술로 재배한 휘남의 '명품 입쌀'



휘남현에서 재배되는 입쌀은 '광천수를 마시며 자라는 화산암 입쌀'로 알려져 있다. 휘남 입쌀은 뛰어난 자연환경과 첨단 농업기술, 혁신적인 브랜드 운영을 바탕으로 국가 지리표지 보호제품으로 선정되었고 세계 입쌀 지리표지 브랜드 100 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화산흑토에서 자란 휘남 입쌀은 현재 휘남현 농업의 '황금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전수 수원이 발견되었다. 이 지역의 하루 총류입량은 11만 2,900평방미터에 달하며 주로 메타규산형이 칼슘, 마그네슘, 리튬, 셀레늄 등 유익한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수온은 1년 내내 6~9℃로 안정적이어서 입쌀이 더 많은 아미노산과 미네랄을 축적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휘남 입쌀은 뛰어난 자연조건 덕분에 윤기도 좋고 향기도 좋으며 구수하다. 길림성제품품질감독검사원의 검사를 통해 2025년 휘남 우수입쌀(1등급)의 시식 점수가 90점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항상 높은 수준으로 품질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과학기술로 농업 혁신

휘남현은 자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스마트 농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벼 품종을 개선하고 논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휘남현에는 35만 5,000무의 논이 있는데 그중 15만무는 국가급 친환경식품원료생산기지로 지정되었다. '중과발 5호', '중과발 6호', '도화향 2호', '소립향' 등 우수 품종이



주로 재배되는데 연간 생산량이 20만 톤에 달한다. 현재 44개의 곡물 수매업체와 14개의 쌀가공공장중 8개는 친환경 입쌀 업체로 연간 가공 능력이 50만 톤을 넘어섰다.

휘남현의 여러 농장과 기업들은 친환경 혁신 기술을 통해 쌀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삽화농장은 벌과 유인제를 사용하여 해충을 방지하고 '오리-벼 동반 재배'와 '계-벼 동반 재배' 같은 자연적인 제조 방법을 도입해 국가 유기농 입쌀 인증을 획득했다. 휘남경도과학기술유한회사는 국가급 친환경 및 유기농 벼재배기지로 지정되고 '국가 우수 농작물' 영예칭호를 수여받으며 그 품질을 인정받았다. 장흥곡물식품유한회사는 길림성의 '신뢰할 수 있는 농작물' 모범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과학기술과 엄격한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휘남 입쌀의 높은 품질이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스마트 농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익농운(益农云)'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농업 전반에 걸친 '인터넷+농업' 봉사를 제공하고 종합 감측관리를 통해 농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생산과정 전체를 추적하여 농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한 스마트 농업 봉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브랜드 강화와 플랫폼 구축으로 소비시장 확대

휘남현은 '중국농민품년절'을 주제로 '휘남쌀 1+3 련동 판매활동'을 진행하면서 휘남 입쌀 브랜드의 영향력을 높이고 판매 경로를 넓혔다.

휘남현은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원활한 련계를 위해 조양진 흥덕촌을 중심으로 성도, 심수, 옥환 등 3개 지역과 함께 실시간으로 생중계 전시판매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2025년 산 햇입쌀의 시장 선점을 지원하고 '축제 류입+지속적 판촉'이 결합된 경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휘남 입쌀 브랜드의 인지도와 평판, 소비자 신뢰도를 높였다.

휘남현은 이제 단순한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휘남 입쌀'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 시장의 수요에 따라 산업 승격을 추진하며 변화를 이끌고 있다.

'품년절' 기간 동안 현재 3개 기업은 총 1만 1,000건 이상의 쌀을 가공했다. 심수분회장은 11개 기업과 성공적으로 협력을 맺었으며 '휘남 입쌀' 판매 협약 3건과 2,000건 이상의 주문을 체결하며 단순한 판로 확대를 넘어 농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길림일보



매하구, 대상건설의 '분진곡' 연주



최근, 매하신구 주요 대상 가을철 착공 행사가 운간육계 3산업 융합 현장에서 가동되었다. 올해 매하신구에서 착공한 대상은 11개로 총 투자액이 9.35억 원이다. 여기에는 3산업 융합과 향촌 진흥 관련 대상이 포함된다.

운간육계(耘垦肉鸡) 3산업 융합 대상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기존 공장부지 재건축과 신규 공장 부지 기반 건설 공사를 질서있게 진행하고 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총투자액이 8.21억 원인 이 대상은 3개 블록으로 나뉘어 건설된다. 첫번째 블록은 2.16억 원을 투자해 부지면적 6.7만평방미터에 건축면적이 5.5만평방미터에 달하는 흰털 육계 도축장 설비의 승격 대상을 완성할 예정이다. 연간 8,000만마리의 도축 목표를 전부 달성하게 되면 연간 24억 원의 생산액을 달성할 수 있다.

두번째 블록은 협력 양계농과 공동으로 4.62억 원을 투자해 고표준의 육계 사육시설 132동과 부대시설을 건설할 예정인데 연간 5,000만마리 흰털 육계를 출하해 연간 13억 원의 생산액을 달성할 수 있다. 세번째 블록은 흰털 육계 제품 심층가공 대상을 건설할 계획으로 총투자액이 약 1.43억 원이다. 전 산업 체인(기존 육계사로 가공 포함)이 가동되면 연간 55억 원의 생산액을 달성하고 직·간접적으로 2,500명의 취업을 이끌 수 있다.

운간유한회사 조효광 리사장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매하구시 당위

와 정부가 이 대상의 착수에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상의 준비 단계부터 시정부는 대상전담팀을 구성해 기업의 수요를 중심으로 선제적 봉사를 제공하고 산업 지원 정책을 정확히 해석했으며 전용 자금을 확보했다. 토지계획, 물, 전기 등 핵심 요소 보장과 관련된 대상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기존 공장부지 재건축과 신규 공장 부지 기반 건설 공사를 질서있게 진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매하구시는 시중 투자유치를 고품질 발전의 '동력과 원천'으로 삼고 정책, 환경, 경제, 기술, 요소 모두 실행 가능한 '다섯가지 실행 가능'으로 대상을 계획, 실시하여 경제의 질적이고 효과적인 제고와 광적이고 합리적인 성장을 실현하도록 추진했다. 중농건설그룹, 원달화농과학기술회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전시방 스마트 로보트 연구개발생산 대상, 대유지용 중약재 산업 대상, 하문 서백군 우항 대상 등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대상도 착공되었다.

매하신구 관계자는 이번 가을철 대상 착공 행사를 계기로 분초를 다투고 진척을 다잡아 대상건설이 새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유경봉기자 /사진 왕요휘



황금시대에서 재배된 고품질 쌀

휘남 입쌀이 맛있는 리유중 뛰어난 자연환경이 한몫한다. 이 지역은 북위 42°에 위치한 황금시대로 연간 작산 온도(年积温)가 2,897℃에 달한다. 138일에서 145일에 이르는 긴 생장주기와 11℃의 큰 일교차로 인해 입쌀은 부드럽고 쫄깃하며 향이 풍부하다. 또한 만년에 걸친 화산 폭발로 형성된 화산암 논은 이곳 입쌀의 독특한 성장 비법이다. 화산재와 흑토가 섞인 토양은 20종 이상의 미량원소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벼의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휘남현은 '중국 광천수의 고향'으로 불리는바 지금까지 58곳에서 광

류하현, 황금들판에 수확의 기쁨 넘쳐



황금빛이 무르익은 10월, 류하현 강가점조선족향은 한창 수확의 기쁨으로 가득차있다. 논밭에서는 일꾼들이 수확에 드바쁘고 일일이 영근 벼들은 차곡차곡 고간으로 옮겨진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서 풍겨오는 진한 벼향이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올해 우리 함자사는 2,000무의 벼를 재배하여 무당 약 1,200근의 수확을 올렸습니다. 모든 작업은 기계화로 진행됩니다."

기능곡물재배합작사 유홍군(喻红军) 사장은 이같이 소개하며 기계화 수확 덕분에 한대당 하루에 15무의 벼를 수확할 수 있어 효율을 크게 높였다고 덧붙였다.

강가점조선족향은 독특한 화산암 지형으로 유명한바 이곳에서 생산되는 화산암 입쌀은 부드럽고 고소한 맛

이 특징이다. 화산암 쌀을 재배하는 전통 기술은 류하현 최초로 성급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점보호 항목이다.

현재 강가점조선족향의 벼 재배면적은 3만 2,000무이고 연간 벼 생산량은 1만 5,930톤, 쌀 생산량은 1만 350톤으로 생산액이 각각 약 4,840만 원과 5,180만 원에 달한다. 강가점향의 11개 쌀가공기업은 전 현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가공 능력은 20만 8,900톤에 달한다. 또한 사직상품(社稷商品, 국가가 인정 우수 품질의 고급 상품) 등 10여개의 유명 입쌀 브랜드를 육성하여 '밭에서 식탁'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산업구조를 실현했다.

류하현 현통진 회의자촌은 지금 일년중 가장 '달콤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채씨네 과수원에 들어서면

산비탈에 과일나무들이 빼곡이 자리잡고 있다. 새빨간 계심과(鸡心果)와 사과들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있다. 이른아침부터 수많은 과일상들이 과수원에 모여들어 과일을 따고 고르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채씨네 과수원은 '즉시 수확 및 판매+직접 배송'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구역은 관광객들이 수확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방하고 나머지 구역은 노동자들이 통일적으로 수확한 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주문된 물량을 선별하고 포장하여 고객에게 직접 배송한다. 현재 과수원의 면적은 총 180무인데 그중 계심과가 약 140무, 사과가 40무를 차지하며 총 수확량은 6만근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길림일보



길림대학제1병원과 매하신구, 4년간 협력 성과 풍성

10월 15일, 길림대학제1병원과 매하신구 협력 4주년 및 국가지역의료센터 건설 가동 2주년 축하 행사가 길림대학제1병원매하병원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정부와 병원이 한마음 되어 사명을 맡고 4년 분투로 새 장 열다'를 주제로 협력 성과를 체계적으로 돌아보고 국가지역의료센터 건설의 미래를 전면적으로 전망했다.

행사 시작과 함께 참석자들은 길림대학제1병원 역사를 구현한 미니영상 <희망>과 매하병원 4주년 및 국가지역의료센터 건설 2주년 미니영상 <매호·새로운 출발>을 함께 시청하면서 병원의 발전 과정과 정부와 병원 협력 4년간에 이뤄낸 풍성한 성과를 돌아보았다.

길림대학제1병원 관련 책임자는 국가지역의료센터 건설 진척 상황과 미래 발전 계획을 소개했다. 길림대학제1병원 매하구 주재 전문가이며 심혈관내과 주임의사인 장위가 파견 전문가 대표로 지역의료센터 건설 참여 경험을 공유했다.

매하신구 관련 책임자는 매하신구는 국가지역의료센터 건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의료보건 서비스 수준을 공동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년간 길림대학제1병원은 출력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전문가 인력을 파견하여 매하병원의 발전을 지원해왔으며 포함 연인원 267명의 상주 전문가와 802명 초청 전문가를 파견하여 연인원 10만 4,329명의 외래 진료, 입원치료 5,652건, 원격진료 2만 1,286건, 난치성 질환 토론 997건, 난치성 수술 2,946

건을 수행했다. 올해에는 매하병원의 외래 및 응급 환자수, 입원환자수, 수술 건수가 2021년 대비 각각 30.59%, 48.93%, 49.44% 증가했으며 그중 3, 4급 수술 비율이 63.56%에 달했다. 병원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어 외래 및 입원 환자중 외지 환자 비율이 각각 37%와 35%에 달했다.

학과 건설 면에서 매하병원은 선후로 국가 표준화 대사질환관리센터, 국가 표준화 고혈압시범센터, 국가 3급 병원 중점센터 인증을 통과했다. 호흡위중증의학과는 국가 임상 중점 전공을 비준받았다. 심혈관내과, 중의과, 소아과는 성급 중점전문과에 선정되었다. 중의과는 길림성 중서의 협동 '기합'과실, 길림성중의약관 리국 '14.5' 중의약 중점학과로 선정되었다. 흉통센터, 방전센터, 중증의학과 등 중점전문과의 협동 발전으로 원격의료 플랫폼의 피복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로년의 학과, 의료미용과가 잇달아 설립되

고 정형외과가 3급 분과를 실현했으며 생식센터는 '부진 정자 인공수정' 및 '시험관 아기' 기술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 첫 시험관 아기가 무사히 태어났다.

길림대학제1병원은 미래를 지향하여 계속 매하신구와의 협력을 심화하고 중앙, 신경, 혈액, 심혈관 4대 지역진료센터를 중점하며 5~6개 성급 이상 중점전문과를 육성하고 5~10개 국가 및 성급 과학연구 대상의 립안을 추진하여 외지 환자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내 일류의 임상진료센터와 고차원의 의료인 재육성기지를 힘써 건설하며 길림대학제1병원과의 동질화 관리와 봉사 수준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광범한 대중들이 '집안'에서 국가급 양질의 료서비스를 향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길림, 건강중국 건설을 추진하는 데 힘을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 유경봉기자 /사진 왕요휘

